

아이들과 함께 절에 오세요

불자자녀 교회·성당 다니는 사례 많아 불교 미래위해 어릴 때 불심 심어줘야

“참불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어릴적부터 불교를 접한 성인불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런데 불자가정의 아이들조차 일찍 불교와 만나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집안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다. 이렇듯 불자들의 자식들에 대한 종교적 관심부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불교는 갈수록 비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불자가정의 가정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가족들이 함께 사찰을 찾는다는 불자정신을 만나자.

초등학교 2학년 임정화양과 여섯살짜리 원형남매는 갖나가기 때부터 어머니의 등에 업혀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불교가 무엇이고, 사찰이 어떤 곳이고, 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적은 한번도 없다. 다만 가족들이 절에 갈 때 함께 갈 뿐이다. 이런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요즘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당에 가면 절을 하고,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한다. 그리고 사찰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아버지 임경환씨(36·서울 강동구 고덕동)씨는 “지난 조계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뉴스에 스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작아민이 갑자기 합장을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스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 한 것이 안타까웠으나 그래도 합장하며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 조금은 가시더군요”하고 말하며 불교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1월 23일 양평 용수사에서 만난 윤병철씨(32·도봉구 방학동)도 절에 갈 때면 항상 아이와 동행한다. 윤씨가 초등학교 1학년인 민영아와 절에 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매일 방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워 지난해 초부터 휴일만 되면 서울 인근 사찰로 향한다. 윤씨가 사찰을 찾아 하는 일은 아이와 함께 부처님께 참배하고, 점심공양 그리고 인근 계곡

이나 들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민영아가 느끼고 배우는 것은 기대 이상이다. 윤씨는 “내가 어릴적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갔던 경험들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불자로써 우리아이에게 불교적 심성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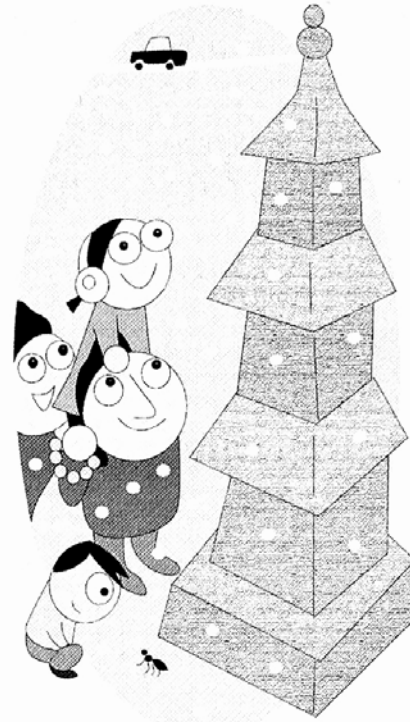
대부분 불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사찰에 가는 것을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족끼리도 종교가 달라져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타종교 가족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76)는 “다른 종교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집안에 불화가 그치지 않아요. 몇해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산소에도 가지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제사는 커녕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가족구성원이 한 종교를 믿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불교가정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절을 찾았던 것처럼, ‘가족불교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 때 최근들어 가족들이 함께 사찰을 찾는 풍도는 불교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징후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김철근 기자(gamja@buddhopia.com)



생활정보

서울교통상황 1주일전 예보

교통 4월부터 서울의 각종 도로공사나 백화점 세일, 집회 등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상황을 종합한 정보가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요일 및 시간대별로 분석,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1주일 간격으로 미리 알려주는 ‘주간교통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6월부터는 주 1차례씩 서울시 교통정보마당 홈페이지(http://traffic.metro.seoul.kr)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의료 보건복지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출생 직후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의 미숙아에게 최고 80%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1월 23일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의 미숙아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80% 한도내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해당 의료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전세금 이월부터 저리 융자

주택 전세 계약 기간만료로 올 해 재계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이달부터 주택은행에서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전세금 차액보전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비 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월초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키로 발표했다.

학생 5만명에 PC무료보급

복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오는 2학기에 매달 2만원씩 3개월간 컴퓨터 교습비를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이종 5만명에게는 2학기중에 ‘국립 PC’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인터넷 사용료를 액수에 관계없이 5년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무보증 대출

금융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증인 없이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증을 구할 수 없어 가계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들을 위해 보증을 대신해 주는 근로자보증보험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1월 25일 밝혔다.

대출금액의 일정비율만 보험료로 내고 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여성 문화교실 열어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회장 정호성)는 1월 26일 조계사내 원심회 법당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갖고, 불교레크리에이션 보급과 문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는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과정과 주부 문화교실을 개설하는 한편 방학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실도 열 방침이다. 또 포교회는 금년에 어린이 영꽃캠프(7월27일~29일), 부처님오신날 거리포교, 여름(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2급 지도자 보수교육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금강독송회는 직접 농사를 지은 콩으로 매년 메주를 만들어 사찰과 불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사찰서 만든 간장 맛있어요”

봉은사등 보급... ‘무공해’ 인기

옛부터 주부들에게 음력 정월은 장을 담그는 달이다. 최근 들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전통 방법으로 제조·보급하는 사찰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의 장류는 순수 국산 콩만을 엄선해 일체의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고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부들 사이에 믿을 만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다.

사찰에서 판매되는 장류는 무해하고 정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 외에도 소금 대신 죽염을 이용, 산성화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기능 및 자연치유력을 높여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판매는 사찰 신도회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강독송회는 회원들이 직접 콩을 재배, 제조해 ‘복매주’라는 등록 상표로 전국에 보급한다. 또 봉은사 생활협동조합은 순창 민속마을 내 향적원과 충주 초정리 관천수로 만든 초정 장류를 판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관계로 쇄도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미리 예약 주문해 두는 것이 좋다.

△금강독송회 02)742-0172 (전국 지회에서도 판매) △봉은사 생활 02)511-6069 △구룡사 02)575-7766 △경곡사 02)914-5447 △석왕사 생활 032)668-0072 △축사암 0523)82-0011 △봉령사 0346)571-0556 △대구 법암사 053)766-3747 △삼보사 02)352-6406 △대구불교회관 053)627-3747 △대전불교회관 042)627-0026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청소년탄신

문화재 애호지침서 나와

사단법인 파라미터 청소년협회가 파라미터 지도자 지침서 제5권(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을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서부터, 사찰의 구조, 불상의 종류, 불교회화, 법구, 불교조형물 등 불교성보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의 시행방향과 봉사활동 대상 문화재를 시도별로 상세히 소개해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보 문화

재 애호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 목록도 함께 실었다.

파라미터는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애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파라미터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02)723-6165

어린이 불교학교 열어

경북 영덕 관음사(주지 무원)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1회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불교학교에는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 사찰예절과 찬불가, 기초교리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음사는 이번 어린이불교학교를 계기로 어린이법회, 계절별 불교학교도 열 계획이다.

관문사 학생회 창립법회

천태종 관문사(주지 문덕) 중 고등부 학생회가 창립했다.

관문사는 1월 23일 총무 월도스님, 권문원 신도회장 등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전국 천태종 사찰 학생회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2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월도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이웃과 함께하는 학생회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관문사 학생회는 지난해 7월 창단식을 갖고 정기법회를 갖는 등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벌여 이번에 창립법회를 갖게 됐다.

대불청 홈페이지 추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안호)는 1월 23일 공주 마곡사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99년도 결산과 2000년도 예산 및 사업을 확정했다.

조직강화와 교육을 기초로 이날 확정된 주요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과 1인 1메일 갖기 운동을 비롯 불청 위크샵(3회) 추진, 불청논문공모, 지역간담회, 대한불청 의제21실업사업 등이다.

천진동자 라이트펜 시판



새상품

봉축위원회 의 캐릭터인 천진동자를 이용한 천진동자 라이트펜이 시판된다.

이 라이트펜은 어두운 곳에서 조명이 독서와 필기가 가능하도록 펜 앞부분에서 빛이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천진동자 라이트펜을 개발한 곳은 ‘반디라이트펜’으로 널리 알려진 (주)세아실업이다. 1개당 3천원이며, 목걸이, 선물용, 사찰용 보충 펜으로 개발되어 있다.

(02)735-7350

다양 속에 묻어나는 단아한 차 이야기

“다인들은 차를 선이라 하네”



김홍도 에세이
신국판 352면
값 10,000원

차는 울적한 기분을 풀어지게 하며,
차는 생기가 나게 하며,
차는 잠을 깨게 하며,
차는 잔병을 예방하며,
차는 남을 공경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예의를 닦게 하며,
차는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차는 도리를 따르게 하며, 차는 맛을 분별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몸을 다스리게 한다.



—對貞— 「茶仙十德」

다인(茶人)들이 차를 마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면 다음과 같다.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을 옳으로 하며, 홀로 마시고 싶다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그 교차하는 만감이 차차 줄어들다가 맨 나중에 공허함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省察)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찰을 거듭하게 되면 세상에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떠오르고, 나를 섬겼던 사람들과 나를 해쳐 줬던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미운 생각이 들지 않고, 증오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용서하게 된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전에 지녔던 욕망과 집착, 손익, 오만 따위가 우습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차를 마시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지나감이다.

茶人들은 차를 禪이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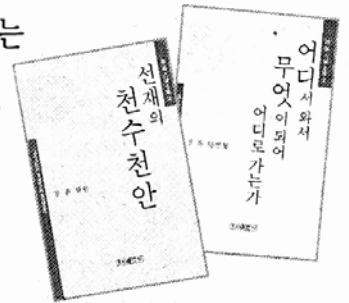
21세기를 깨우는 할(喝), 정휴스님 전집 출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그러들지 않는 감동,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영혼의 언어가 우리 곁에 찾아온다.



제1권

제2권



신국판 양장/각권 10,000원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선재의 천수천안

정휴스님전집 ①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②선재의 천수천안 ③전강명전(田岡明傳) ④관 ⑤종정법어집(宗正法語集) ⑥관 ⑦백학간두에 무슨 절망이 있으리요 ⑧관 ⑨낮은 사람의 자유 ⑩관 ⑪고승평전집(高僧評傳集) ⑫관 ⑬월반제 ⑭무상 속에 영원을 산 사람들 ⑮관 ⑯승물 때 내 곁에 오는 초인(超人) ⑰관 ⑱걸레스님 ⑳관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